

조선적 ‘에로’의 발명

— 1920~30년대 고백하는 섹슈얼리티와
성교육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소영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목차

- 1 들어가며: 섹슈얼리티의 사회적 구성
- 2 ‘에로 그로’의 유행과 ‘음란한 것’의 구성
- 3 고백하는 섹슈얼리티와 성적 욕망의 신체화
- 4 ‘음란한 것’의 의학화: 성지식, 성문제, 성교육
- 5 결론을 대신하여: 고백 형식과 성교육 프로젝트

1930년대 전후, 사회의 계급적·젠더적 전환이 이루어졌다. 계급적·젠더적 위계 체제에 의한 근대적 개인의 복합적 분할과 재구축은 순차적인 것이라기보다 문화적 풍경 변화와 함께 이루어지는 동시적이고 상호적인 과정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한 관계적 특성으로서 가시화되었다. 자유연애가 시대사조가 된 1920년대 이후로 풍기문란을 우려하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성교육과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새로운 지식이자 근대적 지식 체계로 수용되면서, 욕망의 과학인 성과학은 근대적 남녀관계의 변화를 생물학적 성차로 설명하면서 성별 차이를 자연화하였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가정이 파탄 상태에 놓이고 성적 혼란이 극에 달했다는 판단, 즉 사회제도가 일대 과도기를 맞이했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접어드는 동안, 성을 둘러싼 인식과 사회제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젠더적 전환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본고에서는 서사물과 인쇄 매체의 기사들, 여타 출간물을 대상으로,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걸쳐 성을 둘러싼 인식과 사회제도에 있었던 변화를, 고백의 형식을 통해 성적 욕망이 발견되고 그것이 성교육의 대상으로 변용되는 과정에서 ‘음란한 것’이 구성되는 과정을 통해 고찰하였다. 위험한 것으로서의 성 문제가 개인의 삶을 작동하게 기본 원리가 되는 장면들을 검토하면서, 섹슈얼리티가 개인과 사회, 민족(/국가)를 구축하는 인식적 저변을 이루는 동시에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재편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국문핵심어: ‘에로’, ‘음란한 것’, 섹슈얼리티, 고백, 염상섭, 「제야(除夜)」, 성욕, 성애화, 풍기문란, 성지식, 성문제, 성교육, 김필레, 『성교육』

성이 움직이는 대로 사회도 움직여 가는 것이다.

— Jeffrey Weeks,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

1 들어가며: 섹슈얼리티의 사회적 구성

‘자유연애’가 시대사조가 된 1920년대 이후로 ‘풍기문란’을 우려하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성교육과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새로운 지식이자 근대적 지식 체계로 수용되면서, 욕망의 과학인 성과학은 근대적 남녀관계의 변화를 생물학적 성차로 설명하면서 성별 차이를 자연화하게 된다.¹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가정이 파탄 상태에 놓이고 성적 혼란이 극에 달했다는 판단, 즉 사회제도가 일대 과도기를 맞이했다는 인식이 팽배해진다.²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접어드는 동안, 성을 둘러싼 인식과 사회제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젠더적 전환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욕구’나 충동은 생래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며 성경험의 본질은 더더욱 아니다. 섹슈얼리티 연구자 게일 루빈의 지적처럼, 인간 행동의 다른 측면들과 마찬가지로 섹슈얼리티의 제도적 형태들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는 인간 행위의 산물이다. 이해관계로 얽힌 갈등과 정치적 술책이 넘쳐나며 갈등의 날카로운 경합의 결과라는 의미에서 섹슈얼리티는 언제나 정치적인 수밖에 없다. 생활영역 차원에서 섹슈얼리티의 형태는 이러한 정치의 시대를 거치면서 재조정되어 일상적 인식이 되는 것이다.³ 섹슈얼리티는 억압된 자연이나 지식이 밝혀야 할 미지의 심층이 아니라 육체의 자극, 쾌락의 강화, 담론의 선동, 인식의 형성, 통제와 저항의 확대가 지식과 권력의 전략들에 따라 서로 연쇄되는 광범위한 조직망 즉 역사적 장치인 것이다.⁴

섹슈얼리티가 “인간의 생산물”이자 인간 행위의 산물이라는 이러한 인식은

-
- 1 이명선, 「식민지 근대의 ‘성과학’ 담론과 여성의 성(sexuality)」, 『여성건강』 제2권 2호, 대한여성건강학회, 2001, 115-116쪽.
 - 2 「성에 관한 問題의 討論(其一), 性知識·性教育·男女交際」, 『동광』 제28호, 1931.12, 34쪽.
 - 3 게일 루빈, 신해수·임옥희·조혜영·허운 역, 『일탈』, 현실문화, 2015, 282쪽.
 - 4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 1, 나남, 2019(3판), 122-123쪽.

섹슈얼리티가 사회에서 분리된 채 규정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성별 차이에 입각한 섹슈얼리티란 생물학적으로 선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⁵ 섹슈얼리티를 구성하는 권력 체계는 성적 위계질서의 구도를 수립하며, 그에 따라 어떤 개인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격려하며, 다른 개인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탄압한다. 말하자면 어떤 개인이나 행위의 의미는 위계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로부터 마련되는 위계질서의 체계에 따라 재편되는 것이다.

19세기 이래로 성과학은 어느 정도까지는 성애술(*ars erotica*)로 기능했으며, 일본을 통해 수용된 식민지 조선에서의 성과학의 사회적 역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⁶ 사실 성과학을 성에 대한 근대적 지식으로 원용하던 이들에게 여성해방은 제한적으로만 유의미했으며,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그들은 여성해방에 적대적이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실제 현실에서 미미했을 뿐이지만 상징적 의미가 컸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의미를 가졌다고 해야 한다면—시작되고 직업을 갖고 경제력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되자, 즉 독신으로 상징되는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정서적으로 자율적인 여성이 현실적 존재로서 등장하기 시작하자, 여성의 성적 착취로 귀결되었던 공적 제도들이 그 여성들을 성적 존재로 재정위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성해방의 시기상조론과 사회적 거부반응은 식민지기 조선에서 제국에 대한 거리두기와 서구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는 명분 속에서 손쉽게 담론적 권력을 획득할 수 있었다. 1920~30년대를 거치면서 식민지 조선에서 여성해방이란 전근대적 성규범에서 해방되지만 곧바로 근대적 성규범에 다시 갇히는 상황을 의미하게 되었다. 전근대적 성규범이 해체된 자리는, 여성을 성애화된 존재로

5. 게일 루빈, 앞의 책, 296-297쪽. 성 본질주의에 대한 도전인 이러한 인식은 섹슈얼리티에 역사를 부여하고 섹슈얼리티를 그것이 구성된 사회적 맥락으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6. 초기 성과학은 대체로 당대적 감각의 과학 언어로서 이해되어, 사회진화론, 인종주의, 우생학 등의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면모로 인해 크라프트에빙(Richard von Kraft-Ebing), 해브록 엘리스(Havelock Ellis), 마그누스 히르쉬펠트(Magnus Hirschfeld)의 저작들의 식민지기 한국 사회에서 성적 다양성 자체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 의미를 누락시킬 수는 없다.

인식하며 결과적으로 성애화된 몸으로 규정하는, 근대적인 성규범들에 의해 곧바로 채워졌다. 근대적 성규범이란 여전히 남성중심적 성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여성의 해방이란 해방이라기보다 버전을 달리한 규범들에 의해 재포섭되는 과정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⁷

본고에서는 “인간의 생산물”로서의 섹슈얼리티의 구성을 둘러싼 권력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상을 구축하였는가라는 질문을 가정과 사회를 둘러싼 젠더적 재편과 위계화 과정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몸을 둘러싼 담론의 형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상과 문화 차원의 변화라고 해야 할, 이 재편의 과정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이다.⁸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재편이 차별적 위계를 생산해내는 과정이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젠더적 관점에 입각한 시대 재인식(re-vision)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⁹

2 ‘에로 그로’의 유행과 ‘음란한 것’의 구성

‘에로’라는 말이나 ‘에로’ 풍조가 조선사회에 널리 퍼지게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전후이다. 그 시기의 용어 해설에 의하면, ‘에로틱erotic’의 약어인 ‘에로’는 연애와 섹징 등의 의미를 가진 말이자, 현대인의 생활과 표현에 있어 성에 대한 욕구에 민감한 현대인의 면모를 포착한 말이었다.¹⁰ ‘에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에로-그로-년센스’ 유행과 함께 1930년대 전후부터 뚜렷해졌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풍기문란의 넘려가 있는 출판물”¹¹에 대한 검열이 완화되었다. 성 관련

7 캐슬린 배리, 정금나·김은정 역,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삼인, 2002. 77쪽.

8 박차민정, 『조선의 퀴어』, 현실문화, 2018. 이러한 복합적 재편에 대한 관심은 성적 정상성과 변태 성욕의 위계의 검토를 통한 ‘조선 퀴어’ 연구로 구체화된 바 있다.

9 제프리 워스도 지적한 바 있듯, 성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탐구가 가져온 가장 중요한 결과 가운데 하나는, 시대에 대한 재평가이다. 도덕적 위선과 성에 대한 거부의 시기로 알려졌던 빅토리아 시대 전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 것도 성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이다. 그리하여 19세기에 대한 전혀 다른 이해의 길이 열렸던 것이다. 제프리 워스, 서동진·채규형 역,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 현실문화연구, 1997, 31쪽.

10 『叢書質疑』, 『동아일보』, 1931.1.19.; 『新語解説』, 『동아일보』, 1931.3.16.

11 『『에로』당에 喜消息』, 『동아일보』, 1930.10.23.

출판물의 이입뿐 아니라 생산 자체가 늘어나면서 세계적인 풍조에 역행할 수 없던 조선에서도 음란함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통과시키게 되는 검열 표준의 완화로 이어졌던 것이다.¹² 이러한 사정은 출판물의 형태로 가시화된 ‘에로 그로’한 분위기가 제국 출판시장의 영향으로, 조선에는 없는 문화로 다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일본을 통해 유입된 ‘에로 그로’는 한국적 맥락 속에서 당대의 성문화를 통과하면서 성에 대한 관념의 재편을 이끌게 되는데,¹³ 첨단 유행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신문기사가 말해주듯, 당대 언급되던 ‘에로-그로-넌센스’의 의미는 뚜렷하지 않았다. 풍문으로 떠도는 근대적-외래적 풍물이었던 셈이다.¹⁴

『동아일보』는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는 신어 해석에 대한 독자 요청에 응답하는 코너로 독서면에 신어(新語) 해설란을 개설한다. 『조선일보』에서는 김기림이 유행어의 해설에 나선다. 최첨단의 근대적 성격을 알려주는 대표적 유행어였던 모던, 에로, 그로, 모뽀, 모걸, 마뽀, 에걸, 란데부, 시크, 세노리타, 플래퍼 등 현대적인 다양한 현상과 새로운 경향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問】 貴報 梁柱東氏 論文末尾에 “에로”와 “그로”라는 말이 있으니 語意와 스펠을 가르켜 주십시오(江景一學者)

【答】 요지음 흔히 쓰는 流行語의 一種입니다. 에로는 英語로 에로틱(Erot-

-
- 12 식민지기 조선의 검열은 출판물의 사전 검열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검사로 이루어져 일본에서보다 엄격한 편이었고, 일본에서 발행한 잡지나 단행본가 발매금지되기도 했으나(정근식, 「일제하 검열기구와 검열관의 변동」, 검열연구회, 『식민지 검열, 제도·텍스트·실천』, 소명출판, 2011, 18쪽. 식민지기 검열에 관한 법령은 한일합병 전에 이미 제정되어 식민지기 유지되었지만, 검열기구는 크게 세 시기에 걸친 변화를 거쳤다. 검열기구가 헌병경찰이던 경무총감부 고등경찰과(1910-1919) 시기, 경무국 고등경찰과(1919-1925) 시기, 경무국 도서과(1926-1943) 시기로 나뉜다), 점차 재래의 도덕에 비추어 문란한 성 문제에 대한 소개가 늘었다.
- 13 채석진, 「제국의 감각: ‘에로 그로 넌센스’」, 『페미니즘연구』 제5호, 한국여성연구소, 2005, 60-67쪽.
- 14 신순철,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유행가 노랫말로 본 ‘에로-그로-넌센스’의 사회상」, 『현상과인식』 제39권 4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5, 123-152쪽.

ic)의 略稱=愛, 戀愛, 色情等 意味.

그로는 英語로 그로테스크(Grotesque)의 略稱=怪異, 奇妙, 야릇한 等 意味. 流行語란 원래 그 語源의 意味와는 좀다른 色彩를 더하여 써어 지는 수가 많으니 그쯤 아십시오(梧)¹⁵

▲ 讀者 “에로”와 “그로”의 簡單한 語意如何 (舊學者)

△ 記者 정말 옛날 兩班이십니다 “에로”는 情事, “그로”는 怪, 奇의뜻입니다 (一松亭)¹⁶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양주동의 논문 「회고·전망·비판 문단제사조의 종횡관」(1931) 가운데 쓰인 ‘에로’와 ‘그로’라는 어의에 대한 해설 요청이 들어오자, 그는 ‘에로’를 “愛, 戀愛, 色情 等”의 의미를 갖는 영어 에로틱(Erotic)의 약칭으로, ‘그로’를 “怪異, 奇妙, 야릇한 等”의 의미를 갖는 영어 그로테스크(Grotesque)의 약칭으로 설명한다. 『신동아』에서 모던어로서 ‘에로’는 에로티시즘(Eroticism)의 약어로 설명된다. “연애 본위” 혹은 “색정 본위”라는 뜻으로 일진(一進)하여 ‘음탕’하다는 뜻으로 널리 쓰이는 유행어라는 어의 해설은 ‘에로’라는 말에 영어 에로틱(Erotic)과 에로티시즘(Eroticism)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었고, 구분 없이 첨단의 유행어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¹⁷ 다른 유행어와 마찬가지로 ‘에로’나 ‘그로’와 같은 약어의 활용이 어원에만 한정되지는 않았다. 「신어해설」의 해설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도 언급되었듯, 유행어란 말의 본뜻과는 쓰임새가 다를 수 있으며,¹⁸ ‘에로’나 ‘그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5 「讀書質疑」, 『동아일보』, 1931.1.19.

16 「應接室」, 『동아일보』, 1931.4.12.

17 그 사용법으로 소개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現代人은 에로를 조하한다」, 「요세 雜誌들은 急速히 에로化한다」, 「B君 그리 에로틱해서는 못써」, 「그 映畵는 너무 에로틱하다」. 「모던語點考」, 『신동아』, 1932.2, 51쪽.

18 사전적 어의로는 근대로 번역될 ‘모던’이 ‘K씨의 양말은 아주 모던인데-’, ‘P와 T는 비행기로 신혼여행을 갔단다. 참 모던이야’라는 식으로 활용될 때, 여기서 ‘모던’은 근대라는 시기적 의미를 초과하여 최첨단의 유행어라는 의미를 가리키거나 포괄하는 말에 가깝게 된다.

양주동의 연재 논문에서 ‘에로’나 ‘그로’의 활용은 문학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양주동은 한국문단을 전망하면서 ‘빼놓고 갈 수는 없으나 큰 활약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문학 범주로 ‘에로 문학’을 거론한다. “에로 그로 等の 文學도 아즉은 多少의 流行이 繼續될 것”임을 수궁하면서도 유력한 문학으로 형성될 근거는 없다고 보았다.¹⁹ 구체적으로 “尖端的 에로를 代表할만한 所爲 모보·모걸도 없고 또 그런 것을 지을만한 經濟的 背景도 업는”²⁰ 상황을 언급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 문학이든 문화든 그 생산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중문학을 염두에 둔 발언이지만, 구체적인 작품이나 성격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현실에의 사용 사례를 보자면, ‘에로’라는 말은 임신을 하기 위해 상식 바깥의 일을 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지칭하는 말로도 동원되었다.²¹ 실물의 감각은, 있다면 제국 일본의 것으로, 그보다 멀리는 미국의 대중문화로, 당대의 조선에는 ‘아직’ 오지 않은 어떤 문화 풍경을 가리키는 것에 가까웠던 셈이다.

출판시장이나 검열표준의 변화를 통해 ‘에로-그로’한 분위기가 외부에서 이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에로 그로 년센스’의 의미가 확정적이지 않았던 것이 이입된 문화여서만은 아니었다. ‘에로’한 것은 곧 ‘그로’한 것이기도 하다는 인식이 저변에 확산되고 있기도 했지만,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인식은 앞선 어의 해설의 요약적 설명에서도 확인되듯, ‘에로’하고 ‘그로’한 것이 ‘음란한 것’을 환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음란한 것’이란 자체로 의미 확정적 개념이 아니며, 사회적 규범의 허용선이 만들어내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범주일 것인데, 그렇다면 ‘에로 그로’의 함의에 대한 논의는 ‘에로 그로’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논의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겠다.²²

19 양주동, 「回顧·展望·批判 文壇諸思潮의 縱橫觀 (八)」, 『동아일보』, 1931.1.9.

20 양주동, 「回顧·展望·批判 文壇諸思潮의 縱橫觀 (三)」, 『동아일보』, 1931.1.3.

21 「女人用 허리띠를 竊盜하다 붓잡혀 아해 못낫는 主人의 명령 받고 생산 만히 한 녀자의 집에 침입 그로 에로劇一幕」, 『매일신보』, 1931.4.5.

22 백인이 흑인에게 특수한 ‘에로’를 느낀다는 인종차별적 담론을 과학적 설명을 통해 전하는 『동아일보』의 한 기사에서, 멜라닌 색소의 과소의 여부가 피부의 두께와 결을 다르게 한다는 설명은 백인종에 비해 황인종, 그에 비해 흑인종의 피부가 더 부드럽다는 논리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백인이 흑인에게 성적인 자극을 받는 이유로 설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극을 주면 피부가 검어진다」, 『동아일보』, 1931.8.19.) 이는 멜라닌 색소의 과소에

대중잡지를 표방했던 『별건곤』에서 전세계의 에로 풍경을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인 ‘에로그로’ 시리즈는 ‘에로 그로’의 통속화를 서사로서 보여주면서 전 세계적인 에로의 분위기를 전했다. 따지자면 인종과 계급, 젠더의 내적 경계와 분할을 만들어내고 그 분할선에 혐오를 부착시켰다고 말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매매춘 풍경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던 ‘에로그로’ 시리즈에서의 ‘에로’ 풍경은²³ 성의 상품화와 자본화가 전세계적인 풍경이라는 뉘앙스를 전하는 동시에 그 풍경에 이국 풍습 혐오를 실어 나르고 있었던 것이다. 빈곤한 타국 여성에 대한 풍경 묘사는 말할 것도 없이²⁴, 풍문으로만 떠도는 이국 풍습이 조선사회에 상륙하는 장면들이 포착되었다. 가령, ‘스틱크깰’에 대한 믿거나 말거나 식 소문은 서울의 변화가에 등장한 ‘매춘녀’에 대한 환기로서의 의미를 가졌다. 백퍼센트의 ‘에로’와 ‘이트’를 발산하며 백화점 계단 혹은 늦은 밤 전차 정류장에서 신사들에게 링크를 보내는 단발랑에 대한 풍문에서 흥미로운 점은 경성의 밤에 출몰하는 여성을 동경과 중국을 거쳐 서울에 온 혼혈아로 설정해두었다는 사실일 것이다.²⁵ 그 여성이 본정 경찰서에 구류되었다가 결국 서울을 떠나게 되었다고 전하는 이 기사는, 매매춘의 풍조뿐 아니라 ‘음탕하고 위험한’ 혼혈의 여성이 서울에서 퇴출되는 장면까지를 의미화하고 있는 것이다.

‘음탕하다, 성욕이 과다하다, 성적으로 문란하다’와 같은 표현에 인종적, 계급적, 젠더적 차별주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표현이 특정한 집

성적 요소를 결합시키는 비과학적인 편견에 불과하지만, 결과적으로 인종주의를 내재화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 23 城北洞人, 「世界人肉市場狂舞曲, 巴里的 에로 萬華鏡」, 『별건곤』 제46호, 1931.12, 32-33쪽.
- 24 중국의 에로에 대한 풍문을 전한 글에서는, 중국 여성의 옷에서 악취가 난다거나 매독으로 얼굴에 부스럼이 돋았다는 식의 외양 묘사에서 이를 잡아 피를 빨아먹고 껍질만 뺄다는 식의 일상적 행위 묘사에 이르기까지 중국 여성이 더럽고 구역질나는 존재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매음 행위에 대한 비판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비난하는 자들이 비난의 대상인 가난한 중국인 여성과 함께 여객선 삼등실에 함께 타고 있었다는 사실은 흐릿하게 처리되었는데, 여기서 두드러진 점은 가난한 중국인 여성으로 우회한 계급 혐오와 인종 혐오에 다름 아니었다. 吳仁浩, 「世界人肉市場狂舞曲, 中國의 에로그로」, 『별건곤』 제46호, 1931.12, 34쪽.
- 25 그 풍문은 초면인 신사와 그녀가 카페에서 환담을 즐기고 진고개를 걷고 난 후 호텔에서 밤을 보냈더라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에로·그로·년센스 亂舞한諸尖端相(一)」, 『조선일보』, 1931.1.2.

단에 대한 시선적 서술로서 사용되기 때문일 것이다. 말하자면 음탕하거나 성적으로 문란한 존재가 따로 있지 않으며, 배제하고자 하는 존재들을 대상으로 한 배제의 서술로서 활용되기 때문인 것이다. ‘에로’의 문화적 활용이 그 근저에서 인종적, 계급적 차별의 면모를 떨칠 수 없는 이러한 이유에서다. 대중적 집합 감정으로서의 ‘에로 그로 년센스’는 성적 정상성과 변태 성욕의 위계를 통해 인종과 민족의 위계를 상상하고 확인하는 일종의 ‘문화적 훈련의 장’이었던 바²⁶, 이는 외래문화의 수용이 데카당한 시대적 분위기와 만나면서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규범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단서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²⁷

“에로”한 의미의 함축이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고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에로 그로”의 함의가 1930년대 전후로 구축되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1930년대 초반 ‘에로 그로 년센스’의 유행을 둘러싼 문화적 풍경에 대한 관심도 각도를 달리해서 바라보게 된다.²⁸ 독립적이고 자유

26 박차민정, 앞의 책, 34쪽.; 채석진, 앞의 글, 58쪽. 또한 동시에 문명과 야만을 구별 짓는 ‘취미’라는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에로 그로 년센스’가 수용되었음을 시사한다.

27 물론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외래적 문화 수용의 차원이 아니다. 출판시장의 확장이 만들어내는 자본의 힘이 식민지 조선에 일방적으로 데카당한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말할 수만도 없다. ‘에로 그로’를 두고 말하자면, 오히려 외래적 문화는 비가시적으로 공유되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이 역설적으로 가시화되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28 근대적 대중문화이자 취미 혹은 취미독물로서 가시화된 ‘에로 그로 년센스’ 경향을 통해 엿볼 수 있는 제국/식민의 부정합의 지층과 그로부터 분출된 일탈적이고 저항적이며 때로 타협적인 정치성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조선-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타자화하는 방식에 집중하는 연구들, 탈식민적 관점의 가능성을 마련해보려는 시도들이 이후로 깊어져 왔다. 근대성, 정확하게는 식민지 근대성의 규명 속에서 섹슈얼리티 담론을 논의하고, 소비대중의 등장에 따른 대중사회의 형성과 섹슈얼리티 생산의 상관성을 염두에 두는 동시에 그것이 식민지(남성) 지식인의 것으로 젠더화되는 과정을 고찰해온 그간의 연구는 일본으로부터 온 대중문화를 통해 이식된 제국/식민의 위계와 그로부터 야기된 조선의 여성화와 조선의 타자화의 면모를 적확하게 짚어내는 성과로서 축적되어 왔다.(이명선, 「근대의 ‘신여성’ 담론과 신여성의 성애화」, 『한국여성학』 제19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03, 5-37쪽.; 소래섭, 『에로 그로 년센스』, 살림, 2005.; 채석진, 앞의 글, 43-87쪽.; 박숙자, 「괴기에서 년센스까지: 1920년대 취미독물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재현 양상 『별건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175-195쪽.;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9, 308-323쪽.; 김양선, 「발견되는 성, 전시되는 성—

로운 개인이 발견되기 시작한 이후로, 남녀의 관계가 이성애를 중심으로 한 생애 사로서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남녀가 연애와 결혼의 구도 속에서 배치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또한 부모와 자식 그리고 교사와 학생, 의사와 환자와 같은 위계적 관계 속에 즉 가정, 학교, 병원, 사회, 그리고 민족/국가로 이어지는 각종 권력의 관계망 속에서 정신과 육체의 규율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음란한 것’이 구성되었다. ‘에로 그로 년센스’의 유행이 아니라 그 유행이 만든 사후 효과로서의 ‘음란한 것’에 집중함으로써, ‘에로 그로 년센스’의 지속적인 합의 재구축 과정이 식민지 조선의 사회적 규범 형성과 재구성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에로 그로 년센스’의 유행을 통해 만들어지는 문화적 경계들에 대한 인식도 뚜렷해질 수 있는 것이다.

3 고백하는 섹슈얼리티와 성적 욕망의 신체화

식민지 근대와 섹슈얼리티의 접속, 『시학과언어학』 제21권, 시학과언어학회, 2011, 49-72쪽.; 차민정, 「1920-30년대 ‘성과학’ 담론과 ‘이성애 규범성’의 탄생, 『역사와문화』 제22호, 문화사학회, 2011, 29-52쪽.; 서지영, 『경성의 모던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3.; 미리엄 실버버그, 강진석·강현정·서미석 역, 『에로틱 그로테스크 년센스: 근대 일본의 대중문화』, 현실문화, 2014.; 김지연·김균, 「식민지 근대 신여성의 담론 연구: 1920~1930년대 한국의 신여성 광고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제17권 4호, 한국광고홍보학회, 2015, 197쪽.; 신순철,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유행가 노랫말로 본 ‘에로-그로-년센스’의 사회상, 『현상과인식』 제39권 4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5, 123-152쪽.) 이러한 논의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신여성 연구에 기반해 있으며 근대성 연구와 상당 부분 겹쳐 있는 이러한 연구들이 축적되는 동안, 젠더화된 근대와 근대 민족주의의 담론의 역설적 지점으로 조명되면서, 여성이 식민지 근대성을 반영하는 거울이자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를 가로지르는 남성중심적 담론 전략에 의해 수동적으로 배치되는 존재로 축소되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나아가 1920년대 이후로 생활과 풍속 면에서 세계를 석권한 것은 아메리카니즘이었고, 신여성(‘모던걸’)을 통해 가시화된 모던문화가 일본 제국에서도 비판의 대상이었던 점을 환기하자면(요시미 순야, 연구공간 수유+너머 ‘일본근대와젠더세미나팀’ 역, 『확장하는 모더니티』, 소명출판, 2007, 30-32쪽.), 섹슈얼리티가 사회구성 원리가 되는 전면적인 변화가 제국 일본의 대중문화 유입에 의한 정치적 이념성의 작동으로만 이해될 수는 없지 않은가를 묻게 된다.

서구에서 18세기의 교육학, 19세기의 의학이 출현한 후로 주체 형성의 한 형식인 고백이라는 장치는 종교적 공간을 벗어나 일상 전반으로 확산되었고 일련의 모든 관계에서 활용되었다. 섹슈얼리티를 논의하면서 고백이라는 장치에 주목한 푸코에 의하면, 고백을 통해 무엇이 행해졌는가, 어떻게 행해졌는가가 발화되며, 더 나아가 성행위를 부추긴 생각, 성행위에 따라붙는 강박관념이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재현 가능한 것이 된다. 고백이란 사회가 개인의 성적 욕망에 관해 발화하기를 촉구하게 하는 장치인 것이다.²⁹ 섹슈얼리티의 조선적 구축에 관한 통찰의 일면은 1920년대 초반에 이루어지는 성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고백하는’ 서사 속에서 얻을 수 있다.³⁰ 『신여성』에서 실화와 수기를 통해 반복되는 여성 욕망의 고백 서사나 나혜석의 「이혼고백장」(『삼천리』, 1934.8-9)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³¹ 1930년대 이후로 이러한 고백 장치는 사회 전반에서 일상화되며, 무엇보다 그 고백하는 여성과 진실을 담보는 남성(/남성 중심적 사회)이 위계를 담지한 체제로서 구조화된다.

편지 형식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는 신여성을 등장시킨 염상섭의 소설 「제야」에 새삼 주목해보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채 결혼을 한 화자가 남편에게 쓰는 형식을 취한 소설 「제야」의 고백하는 화자는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이 남편(‘당신’)에게 있음을 명백히 한다.³² 이 지적은 “매파의 입과 피차의 사진”(95쪽)과 소개하는 이들의 조언을 통해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과거의 유물로서의 “인습적 혼인”(95쪽)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화자의 고백에 의하면 그렇다. 하지만 고백 장치를 활용하는 소설 자체는 그들의 결혼의 파탄이 열핏

29 미셸 푸코, 앞의 책, 77쪽.

30 당대의 대표적 신여성을 모델로 한 소설로도 잘 알려져 있는 염상섭의 1920년대 초반 작품들, 「제야」(1922), 『해바라기』(1923), 『너희들은 무엇을 얻었느냐』(1923-4)는 신여성을 중심으로 ‘자유연애’ 열풍이 불러온 신평속을 비판한 소설이라기보다, 의도와 무관하게 여성의 성적 욕망이 가시화되는 장면을 포착한 소설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31 김수진, 앞의 책, 266-276쪽.

32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파탄,” 즉 결혼 실패를 “반복”하게 된 것은 화자와의 혼인 이전에 이미 실패의 경험이 있음에도 그 요인에 대한 반성 없이 인습적 혼인 방식을 반복했던 남편의 ‘안이함’ 때문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염상섭, 「제야」, 『두 파산』, 문학과지성사, 2006, 97쪽.

보기와는 달리 ‘당신’에게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게 한다.³³

그의 책임이 시대적 책임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그가 재혼을 위해 허용한 것들을 통해 좀더 분명해진다. 구습의 관념에 사로잡힌 그가 재혼을 위해 선택한 화자는 사회의 시선에서 보자면, 첩의 자식으로 당대에는 혼기를 한참 지난 나이인 25살 동갑내기로, 유학생계에서나 경성 사회에서 사생활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몰고 다닌 여자이다. 그런 화자를 두고 그는 결혼 이후 동경의 여자대학에서 공부를 지속시키겠다는 조건을 내건다. 파탄의 결정적 계기인 혼전 다른 남자와의 임신까지 고려해보자면, 결혼 파탄의 원인을 남자 쪽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게 되는 것이다.

6년간의 동경 생활을 끝내고 귀국하여 교편을 잡으며 문예 방면의 연구를 지속하고자 하는 그녀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왜 그녀는 구식 결혼을 한 후 남편에 대한 죄의식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택하고자 하는가. 자유연애로 독일로 가고자 하는 열망, 안되면 미국에라도 가고자 하는 열망은 기혼인 E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자, 임신한 몸만을 남긴 채 깨지고 만다.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이 남긴 것은 불륜의 결과물 즉 미혼인 채의 임신한 몸이라는 이러한 인식은 실상 개조 열풍이 불고 근대적 개인에 대한 각성이 시작된 1920년대 이후로 남성 엘리트 지식인들이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에 대해 갖던 일반적인 인식에 가까웠다.³⁴ 여성적 욕망과 그 발견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성적 자유를 획득한 여성에 대한 치죄의 형식으로 서사화되었던 것이다.

33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화자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그는 “세사에 아직 어둡고, 보통 조선 청년과 같이 인습도덕에 대하여 아무런 반항적 사상이 없는” 사람이지만 “선량하고 순직한 그리고 세속적이요 타산적이며 소극적인”(95쪽) 사람이다. 남편은 당대적 시대감각에 뒤쳐진 존재이지만 그저 평범한 조선 청년일 뿐이므로, 연애와 사랑에 기초한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에 대해서는 안다 해도 이론상으로만 알고 있던 상황이 전부인의 배신도 불러왔다는 상황 논리로, 즉 고백의 이면에서 남편에 대한 옹호를 전한다.

34 그러나 ‘낭만적 사랑’과 그것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 즉 기존의 결혼 제도를 비판하고 육체적 욕망에 대한 정신성의 우위를 강조하며, 무엇보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전제하는 ‘러브’로부터 연원한 자유연애와는 따지자면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가토 슈이치, 서호철 역, 『‘연애결혼’은 무엇을 가져왔는가—성도덕과 우생결혼의 100년간』, 소화, 2013, 41-45쪽.

(1) 오늘날 와서도 대담하고 무례하게 부모의 결점을 탄로하여 불초의 죄를 거듭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생명이, 그 발아의 초일보를 불륜의 결합에서 출발하였고, 그 생명의 유아(幼芽)를 발육하여준 영양소가, 육의 향과 환락의 녹주였다는 것이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희 조부님은 말할 것도 없고, 가친의 절륜한 정력(精力)은 조부의 친자임을 가장 정확히 증명합니다. 60이 가까워 오시는 지금도, 소실이 둘이나 됩니다. 그중에는 자기의 손녀라 하여도 망발이 안될 어린 여학생 퇴물까지 있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님이란 이도, 결코 정숙한 부인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말은 자식 되는 나로서는, 입 밖에 내지 못할 뼈가 저린 수치요, 한편으로는 죄악이올시다마는, 당신에게만은 하나도 빠지 않고 아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서 하는 말씀이오니 용서하시고 보아주신 후 생존하신 부모님을 위하여, 물론 비밀히 하여주실 줄로 믿습니다.(「제야」, 102-103쪽)

(2) 사실 나는 도처에, 여왕인 자기를 발견하였습니다. 자기의 이사(願使)에 복종치 않는 남자가 없다는 만심(慢心)이, 어느덧 굳게 못 박혔습니다. 나의 분방한 정열은 저지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연애만을 고수하고 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홍순(紅脣)으로부터 홍순에! 차라리 나는 그것을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그것도 염증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략) 사실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구 대신에 얻은 것은, 이때껏 경험하여보지 못한 강렬한 성욕의 충동이 불 일 듯한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멸락(滅落)의 제2륜에 들어섰습니다.(「제야」, 106~107쪽)

(3) 과연 6년간의 동경 생활은 가정에서 경험한 것보다도 또다른 화려한 무대였습니다. 나의 앞에 모여드는形形色색의 청년의 한 때는, 보옥상(寶玉商) 진열상 앞에 선 부인보다도, 나에게는 더 찬란하고 만족히 보였습니다. (중략) 좌우편에 한 개씩 유다른 것으로 대(對)로 하여 끼우기로, 그러나 방순한 육(肉)의 사향(麝香)을 쥐 나의 손에 끼워지는 것만

다행으로 아는 그들에게는 좌우에 두 개가 있다고 불평을 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대한 나는 절대였습니다. 나의 의사는 최고 권위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허다한 신류(臣僚)에 애의 여신의 궁전(宮殿)은, 보일보(步一步) 들어갈수록 넓고 깊고 찬란하였을 뿐이었습니다…… 타락의 전정(前程)은 탄탄대로였습니다.([제야], 109~110쪽)

소설 속 편지 즉 고백은 다각도로 이루어진 여성 화자의 성욕에 대한 발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성적 욕망에 대한 고백에서 나아가 여성 화자는 육체적인 욕망 이상의 것, 직업이나 사회적 활동 혹은 결혼에 이르는 다층적인 욕망에 대해 고백한다. 성적 욕망이 강렬한 집안 내력을 갖고 있으며 정조를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 사랑의 신조를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집안 분위기가 스스로 성적 욕망에 자유로운 존재가 되게 했다는 고백은 성적 욕망을 생물학적 차원의 것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성적 욕망을 부추긴 집안의 분위기와 사회적 조건 그리고 구시대적 혼인 제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당대 근대적 여성이 처한 현실이 부가적으로 제시된다.

염상섭의 「제야」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듯, 이때 만들어지는 개인은 욕망하는 ‘젠더화된’ 개인이다.³⁵ 바로 이런 의미에서 화자의 고백 내용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고백을 둘러싼 형식이다.³⁶ 고백 내용에 대한 해석이 듣는 사람에게 허락된 기능이라는 점에서, 「제야」에서 고백 내용의 진실성은 구시대적 혼인 제도를 유지하는 조선 청년인 남편의 것이 된다. 고백을 증거가 아니라 징후로, 성생활을 해석해야 할 것으로 만듦으로써, 고백이 행해지기 전에 고백을 요구하거나 고백이 이루어진 후에 결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백을 가로질러 고백을 판독함으로써 진실한 담론을 구성할 수 있는 담론 구성의 권력이 듣는 사람 쪽에

35 성을 둘러싼 각종 문화적 담론과 제도 이전에 본래적인 의미로서의 성(sex)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던 푸코의 인식을 빌려 말해보자면, 고백 이전에 욕망(혹은 욕망하는 개인)이 이미 존재한다는 식의 사유에서 벗어나 오히려 정반대로 이 과정에서 욕망과 욕망하는 개인이 마련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6 고백이라는 형식이 학교 성교육의 출발지이기도 한다는 사실은 성교육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1930년대 전후에야 비로소 가시화된다.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³⁷ 기록화된 고백의 형식으로 소설 「제야」를 통해 여성의 성적 욕망이 읽히는 것으로 발명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논평의 대상이 되게 한 전환의 장면을 들여다보게 된다고 말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여성의 성적 욕망은 새롭게 마련된 시간을 통해 가시화된다. 「제야」에서의 화자의 결혼이 보여주듯, 구시대적 혼인 제도는 혼인 이전에 남녀의 직접적인 만남이나 교제를 전제하지 않는다. 사진이나 매파를 통해 이루어지는 혼인에서 여성의 연애 감정이나 성적 욕망이 발현될 공간은 없다.³⁸ 반대로 말하자면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고백은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자, 여성이 성적 욕망의 존재로서 사회적 시야에 노출 아니 포착되기 시작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성적 욕망의 존재로 여성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경향이 한국문학의 영향에서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며, 서사를 통해서만 확인하게 되는 것도 물론 아니다. 패션에서 스타일에 이르는 대중적 집합 감정의 형성에 서양 영화가 미친 영향을 새삼 언급하지 않더라도³⁹, 미국에서 기원한 대중문화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1926년 이후로 ‘그것’을 가리키는 대명사 ‘이트=It’는 가장 선정적인 단어가 되어버린다. 1920년대의 영화 관객을 사로잡은 플래퍼(Flapper) 클라라 보우 때문이었다. 1920년대 후반 조선에서 모던걸을 상상하고 주도하는 데 영화 〈이트〉와 ‘이트걸(The It girl)’ 클라라 보의 이미지가 담당했던 역할이 적지 않았던 바,⁴⁰ 자신의 ‘it’으로 모든 남성을 사로잡는 여성, 엘리너 글

37 미셸 푸코, 앞의 책, 75-76, 81쪽. 푸코의 날카로운 지적처럼, 고백하는 여성과 고백의 대상인 남성으로 이루어진 이 소설에서 고백의 진실성은 듣는 쪽에 의해 인증된다. 고백 담론의 진실은, 말하는 사람과 그가 말하는 내용 사이의 관계에 의해 확보된다. 지배의 심급은 말하는 사람 쪽이 아니라 듣고 침묵하는 사람 쪽에, 알고 대답하는 사람 쪽이 아니라 알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질문자 쪽에 있다. 이 진실이 담론적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담론적 진실을 수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담론적 진실을 강요당하는 삶 쪽에서인 것이다.

38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한 1920년대 이후에서야 비로소 성적 욕망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졌다는 것은 유추 가능한 상황이기도 한 것이다.

39 김진송, 『판스홀을 허하라』, 현실문화연구, 1999, 174쪽.

40 류수연, 「조선의 ‘이트(It)’가 된 모던걸」, 『민족문화사연구』 제53호,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13, 205-230쪽.

린(Elinor Glyn)의 소설 『이트』를 영화화한 작품 〈이트〉의 주인공 베티 로와 그 역할을 연기한 배우 클라라 보는 그야말로 ‘에로’ 미를 발산하는 존재 즉 이성을 상대하는 여성의 성적 매력 자체 혹은 표현된 신체로 상징화되었다.⁴¹ 「모던어점고」에서 ‘에로’에 대한 용어 설명에 클라라 보의 삽화가 함께 배치되었던 것에서 이미 예견되었던 바⁴², 이후 클라라 보우가 스스로 언급하였듯이, 성적 매력을 가리키던 ‘이트’는 점차 ‘음탕한 것’이라는 의미로만 남게 된다.⁴³ ‘에로’는 이렇게 ‘음탕한 것’이 되었다.

1920년대 미국에서 자유분방한 젊은 여성을 지칭하는 ‘플래퍼(Flapper)’는 성숙한 여성을 가리키는 ‘셰노리타’와는 다른, “짧은 「스카트」를 팔락거리며 많은 사나이 친구를 끌고 다니는 말괄량이”를 가리키는 말로 소개된다.⁴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개혁 운동을 추진하던 김슨걸과 달리 자유로운 여성성을 주장한 플래퍼는 소비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대중문화가 무르익기 시작한 경제적 번영기에 등장한다.⁴⁵ 플래퍼의 ‘이트(It)’와 ‘뺨걸(bad girl)’ 이미지라는 미국발 상업적인 대중문화의 영향은 여성의 성적 욕망의 부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그 성적 욕망이 실체화된 여성의 몸을 통과하면서 가시화되었음을 말해준다.⁴⁶ 이후로 여성의 미는 얼굴에서 다리로까지 확장되었고, 여성의 신체가 얼굴과 다리의

41 클라라 보우 자신의 설명에 의하면, 「이트」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방에게 완전히 主義를 집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요약되었다. 그녀 자신의 이해와는 무관하게 팬들에게 「이트」는 섹슈얼리티 자체를 의미했고, 그 구현이 바로 클라라 보우였던 것이다. 崔生, 「印象記 映畫 『이트』 讀映會映寫會上映」, 『조선일보』, 1928.12.25.; 편석춘, 「流行語」, 『조선일보』, 1931.1.13.; 「「이트」의 旋風, 섹스로 表現된 사랑의 女神」, 『조선일보』, 1965.10.10.

42 「모던語點考」, 『신동아』, 1932.2, 51쪽.

43 「고혼 마음씨에서 『이트』가 생겨난다」, 『조선일보』, 1935.4.18.

44 편석춘, 「流行語」, 『조선일보』, 1931.1.13.

45 박현숙, 「미국 신여성과 조선 신여성 비교 연구: 복식과 머리 모양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제28호, 한국미국사학회, 2008, 4-12쪽.

46 김수진, 「신여성 현상의 세계적 차원과 사회적 차이: 영국, 일본, 그리고 인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2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06, 185-230쪽.; 황혜성, 「“위험한 여성” 플래퍼: 1920년대 미국 문화 단면 읽기」, 『미국사연구』 제22호, 한국미국사학회, 2005, 89-118쪽.

아름다움으로 각기 분할되어, 미모와 각선미로 취급되었다.⁴⁷ 1930년대 전후로 본격화된, 남성이 여성을 성적으로 구성하고 전유하는 구조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인식적 전환은 결과적으로 여성의 성적 대상화로 귀결하게 된다.⁴⁸ 여기서 기억해두어야 할 점은 여성의 성적 욕망이 발견되던 그 시기에 이미 성적으로 대상화된 존재로서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4 ‘음란한 것’의 의학화: 성지식, 성문제, 성교육

바야흐로 성욕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담론 가운데 ‘성욕’이라는 단어는 1930년대 전후로 한 시대를 풍미하는 대표어가 된다. 사와다 준지로(澤田順次郎)의 저서인 『피임과 산아제한법의 연구』(정문사, 1923)⁴⁹로 대표되는 바, 1920년대 초중반 피임법에 대한 소개가 성(과)학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면서, 산아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피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었다. 풍기문란을 비판하는 자리에서 1920년대 말 피임약에 대한 발매 광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47 “도처에서 여자는 그 다리에 란숙한 「이트」와 일천구백삼십년형(型)의 미(美)를 발산식히기에 전력을 다했으며 사나회들의 추군추군한 시선은 녀자의 얼굴로부터 차츰차츰 아래로 향하여 각선미(脚線美)에서 연소한다.” 「맨발에 구두 신기와 두겹 양말유행」, 『조선일보』, 1931.1.4.

48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걸쳐 여성 관련 잡지들에서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던 여학교 탐방이나 여학생 관련 소개글들을 통해, 이 시기에 근대적 여성 주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상화와 들여다보기 식의 시선을 통해 포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시선의 형식으로 구축된 이 남성중심적 관점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성애화의 결과라고 해야 한다. 근대교육 체제로 진입한 여성 즉 집 바깥으로 나온 여성을 사회가 들여다볼 대상으로 위치지우는 이런 매체의 담론화 방식을 통해, 여성은 성적인 몸으로 즉 남성의 쾌락과 욕망을 충족시키는 성적 존재로 타자화되는 것이다.(소영현, 「여학교와 기숙사—식민지기 여학생과 일상 감각의 젠더적 재편」, 『국제어문』 제38호, 국제어문학회, 2019, 91쪽.) 물론 도나 해러웨이의 지적처럼, 성적 전유는 노동이 갖는 인식론적 지위를 유지하며, 바로 그런 이유로 이때 여성은 보다 깊은 의미에서 주체로 존재하지 않으며, 잠재적 주체조차 되지 못한다.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실존을 성적 전유에 빚지기 때문이다. 도나 해러웨이, 황희선 역, 『해러웨이 선언문』, 책세상, 2019, 39-41쪽.

49 광고문을 통해 소개되는 이 책은 ‘사와다성연구총서[澤田性の研究叢書]’ 제6권인 『實際に於ける避妊及び産兒制限の新研究』(正文社書房, 1923) 일본 원서이다.

은⁵⁰, 피임과 산아제한 그리고 성적 쾌락이 대중적 논의로서 다루어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⁵¹ 저널리즘 전반에 영향을 미친 ‘에로 그로 년센스’ 풍조로 구체화되었던 바, 모든 문화물의 흥행 가치가 점차 육욕의 노출 여부에 집중되었다.⁵² 이 성과 접촉하여 생기는 생리적 욕망을 채우려는 감정이 성욕이며, 체질, 성별,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의과대학 세균학 의학박사 정석태의 설명방식이 보여주듯,⁵³ 성적 욕망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또 설명되어야 할 영역 아니 대상이 되었다.

성욕 개념의 출현으로 성적인 욕망이 개인의 내면적이고 주체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성행위가 개인적인 것으로 규정되었으며, 정사 스캔들이나 성과학 서적의 유포와 함께 점차 통속화되고 대중화되었다.⁵⁴ 풍기문란이 사회 문제로 본격화되는 것도 1930년대 전후의 일이다. 풍기문란의 문제적 주체는 중장년 남성이었음에도 사회적 근심거리로 대두된 것은 학생의 풍기문란이었다. 술, 담배, 도박 등과도 연관되어 있는 성인의 풍기문란과 달리, 청소년과 청년의 경우에는 성이 주요 문제였기 때문이다.⁵⁵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폭넓게 논의되었던 성문제란 자위, 계간 등 이른바 비정상적인 성행위와 그로부터 야기된 질병 즉 성병을 의미했다.⁵⁶

성지식과 남녀교제 그리고 이상적 신가정에 대해 질문하며 1931년 잡지

50 『『에로』당에 喜消息』, 『동아일보』, 1930.10.23.

51 앵거스 맥래런, 정기도 역, 『피임의 역사』, 책세상, 1998.

52 「演劇映畫展을 開催하면서(上)」, 『동아일보』, 1931.6.19.

53 정석태, 「性慾의 生理와 心理—男女兩性の 性慾苦」, 『별건곤』 제19호, 1929.2, 64쪽.

54 가와무라 구니미쓰, 손지연 역, 『섹슈얼리티의 근대』, 논형, 2013, 85-87쪽. 109쪽. 111-112쪽. 일본에서 남녀의 섹슈얼리티와 성욕이 위생이나 건강 문제가 아닌, 사회와 가족, 가정 내 윤리 문제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10년대부터로, 이른바 성(性)가족이 탄생하면서 서부터이다. 성욕은 점차 통속적인 말로 변해갔는데, 문학적 사건이나 정사 스캔들 등의 영향이 있었고, 성과학 서적과 의학서적 특히 산부인과의 통속적인 의학서가 유포되었던 사정과 연관되어 있었다. 산부인과 의사 오가타 마사키요(緒方正清), 『부인 가정 위생학』(초판 1907 증보판 1916)이 그 대표적 서적 가운데 하나이다.

55 「가을의 소년소녀에 무서운 유혹의 손」, 『동아일보』, 1931.9.29.; 주요섭, 「학생풍기문란론」, 『동광』 제28호, 1931.12.

56 Sabine Frühstück, *Colonizing Sex*,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pp.58-60.

『동광』에서 실시한 설문은 성에 관한 당대 의식의 적지 않은 변화를 엿보게 한다.⁵⁷ 설문에 응답한 이들은 성이 금기시되는 수치심의 영역임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남녀내외법 폐지를 포함하여 남녀공학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성문제 해결에서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⁵⁸ 성지식의 출처에 관한 응답들은, 성행위를 포함한 성 경험에서 “성의 기교”(김억), 신체의 기능에 대한 생리학적이고 의학적 지식에 이르기까지 그 이해의 폭이 넓었지만, 성에 대해 저절로 알게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 즉 성문제를 가르치고 배워야 할 어떤 것으로 상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순과학적, 생물학적 견지에서의 성교육”(양주동) 실행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대표되듯,⁵⁹ 성문제는 성에 대해 알아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즉 생물학적인 차원에서의 신체에 대한 설명과 (호르몬 작용에 의한) 성욕의 발현을 둘러싼 생리학적 설명을 통해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문제가 된 것이다.

(1) 社會制度의 一大 過渡期인 지금에 있어서 家庭은 거이 破滅狀態에 잇

- 57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性知識과 男女交際 1) 당신은 어떤 機會에 性的 知識을 얻었습니까. 2) 그 經驗으로 보아 性教育은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3) 男女交際獎勵의 具體的 方法 / 2. 理想의 新家庭 1) 만일 내게 모든 制度를 뜯어 고칠 能力이 잇다 하면 家庭, 結婚, 離婚 등에 관한 制度를 어떻게 할까. 2) 妓生制 撤底의 可否와 그 理由 (到着順) 「성에 관한 問題의 討論(其一) 性知識·性教育·男女交際」, 『동광』 제28호, 1931.12, 34쪽.
- 58 성별 신체적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에 남녀가 격리된 채 생활을 함으로써, 해소되지 못한 호기심 등이 결과적으로 실제 성경험이나 성생활에서 역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 59 崇實專門 梁柱東; “2. 中等程度學校에서 上級生에 한하여 純科學的, 生物學的 見地에서의 性教育을 實際로 課함이 좋을 듯 합니다. / 思春期의 子女를 둔 家庭에서는 그 父母되는 이가 適當한 教導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하라면 먼저 우리 朝鮮 사람의 性에 대한 觀念 - 그 過大한 羞恥感, 도에 넘치는 神祕化的 傾向, 타부시하는 態度 등등을 打破할 必要가 잇겠습니다. / 性教育에 있어서 한 가지 특히 高調할 것은 手淫의 惡弊害입니다. 獨逸은 그 점에 있어서 우리의 모범이 될 만합니다.”; 新生社 柳滢基: “1. 저는 外國 어떤 病院에서 일을 할 적에 틈틈이 醫師의 『性學』을 뒤져보고 性에 대한 事實을 좀 짐작하였습니다. 지금도 性에 대한 經驗家의 書籍을 두근두근 읽습니다. / 2. 性教育은 科學的으로 하여겠습니다. 僞善 우리에게는 性教育書籍이 急합니다.” 「성에 관한 問題의 討論(其一) 性知識·性教育·男女交際」, 『동광』 제28호, 1931.12, 34-38쪽.

고 性的 混亂은 그 극에 달하였으니 男女交際의 性的 紊亂, 妓生, 公娼, 私娼의 賣淫, 離婚, 別居 등의 家庭悲劇 등 하나도 그 이 아님 없다. 이 모든 問題의 解決은 社會制度의 根本的 解決 없이는 얻지 못할 것이나 必要한 程度 내의 관심 환기를 問題解決의 一助가 될까 하여 左記 二大問題로 諸氏의 意見を 구하기로 하였다.⁶⁰

(2) 問題는 眞正한 意味의 一夫一妻制를 樹立하는 것이다. 現代의 一夫一妻制라고 하는 것이 假飾에 不過하다고 하는 것은 問題를 正視하는 사람의 否認치 못하는 일이다. 東洋에 있어서는 蓄妾제도가 있고 西洋에 있어서는 宗教的 假面의 뒤에 姦通이 默許되고 잇는 形便이다. 公娼, 私娼의 制度는 一夫一妻制를 一種의 우습꺼리를 만들고 말았다. 最近에 이르러서는 職業婦人의 進出과 同時에 우습을 파는 女性이 大量으로 産出되고 所謂 女子事務員, 女秘書의 地位도 家庭破壞의 現象을 加速하는 原因이 된다. 都會는 魔窟化하고 暗黑의 女子가 거리에 汎濫하게 된다. 農村과 漁港에도 紅燈의 노래가 퍼져 나간다.⁶¹

성적인 문란함과 부부의 이혼이나 별거 문제가 동일한 범주에서 사유되는 설문의 취지는 성문제가 가정을 포함한 사회의 중추적 문제라는 인식이 공유되는 당대 감각을 유추하게 한다. 이러한 인식은 성문제를 ‘결혼, 이혼, 재산권, 축첩, 아동 소유권’으로 압축되는 “男性本位”의 제도와 ‘공창, 사창, 예기’와 같은 “企業本位” 제도로 세분해서 다루게 하였다. 성이 부부관계를 중심에 둔 가정 문제로 다루어지는 동안, 생식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 제도 바깥의 어떤 성경험도 도덕적 비난에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통념을 강화하게 된다.⁶² 이러한 인식은 성에 대한 제한적 교육이 성을 신비화하며 여성의 정조를 가정과 사회를 경계로 분할 배치하게 되는 ‘과정’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다.

60 「성에 관한 問題의 討論(其一) 性知識·性教育·男女交際」, 『동광』 제28호, 1931.12.

61 주요한, 「성에 관한 諸問題」, 『동광』 제28호, 1931.12, 44-45쪽.

62 게일 루빈, 앞의 책, 299쪽.

이런 과정 속에서 성문제의 주요 해법으로 일부일처제가 제시되기에 이른다. 물론 축첩제 근절을 통해 이상적인 가족제도로써 ‘일부일처’가 주장된 것은 근대 초기로부터이다. 유교적 윤리의식과 서구에서 유입된 윤리의식의 중첩된 구조 속에서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 차원에서 요청되었던 ‘일부일처’는 1922년 12월 만들어져 1923년 7월부터 시행된 <조선민사령> 제2차 개정안에 의해 법적으로 지지되는 제도가 되었다. 부인과 법률혼 외의 여성(첩)의 관계가 법률에 따라 정해지자, 부부의 사랑에 기반한 결혼이 아내의 위상을 강화한 것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제도화는 아내의 자리를 안정화하거나 축첩제의 근절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률혼주의의 채택으로 법률에 의해 아내의 자리가 확정됨에 따라, 오히려 아내의 지위는 법적으로 획득해야 할 지위로 약화된 것이다.⁶³

이러한 사정을 의식해서인지, “問題는 眞正한 意味의 一夫一妻制를 樹立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통해, 「성에 관한 제문제」에서 주요한은 제도의 진보적 면모를 강조하는 것에서 나아가 일부일처제 수립의 방법론에 대한 고민까지를 보여주었다. 1920년대 이후로 노동하는 여성의 증가를 그 저해 요인으로 바라보는 동시에 가정을 지나치게 성화할 때에도 일부일처제의 수립은 요원해진다는 점을 놓치지 않았고, 영아살해나 이혼으로 이어지는 구도덕의 폐해에 대해서도 균형감 있게 짚어주었다. 주요한의 일부일처제 수립 주장은 성에 관한 모든 제도가 “인류의 사회조직을 유지발전케 하는 원동력”인 동시에 “모든 제도를 규범하는 제도덕률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전제한 것으로,⁶⁴ 사회의 최소단위인 개인과 가정을 규율하는 주요한 원리가 성이라는 통찰력을 보여준다.

성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성 문제가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자본의 힘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적 제도

63 전미경, 『근대계몽기 가족론과 국민 생산 프로젝트』, 소명출판, 2005, 85-113쪽.; 정지영, 「근대 일부일처제의 법제화와 ‘첩’의 문제: 1920-1930년대 『동아일보』 사건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제9호, 한국여성사학회, 2008, 86-97쪽.; 전미경, 「1920~1930년대 ‘남편’을 통해 본 가족의 변화—『신여성』과 『별건곤』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29호, 한민족문화학회, 2009, 411-413쪽.; 소현숙, 『이혼 법정에서 선 식민지 조선 여성들』, 역사비평사, 2017, 382-389쪽.

64 주요한, 앞의 글, 44쪽.

문제이자 근본에서 남성중심주의의 문제라는 것에 대한 당대적 인식의 깊이를 시사한다.⁶⁵ 요컨대 성은 위험한 것이라는 인식, 그 위험은 개인에서 가족, 사회에 까지 이른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게 되자,⁶⁶ 이로부터 성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대중적으로 유포할 수 있는 통로가 성교육의 이름으로 마련되었기 시작한다.⁶⁷ 고백 장치를 보완하는 새로운 장치로서 성교육 관련 논의가 빠르게 힘을 얻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일상의 층위에서 보자면, 성을 행하고 있으나 성적으로 무지하다는 판단은 성적 무지가 사회 전반에서 문제를 야기한다는 입장과 결부되어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의 요청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성교육』⁶⁸의 저자 김필레가 짚고 있듯, 반만년 동안 본능을 억제하고 성적 생활을 비밀에 부쳐온 것은 “성욕은 불결하고 위험한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김필레에 의하면, 성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 모두가 본능으로서의 성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의 인정에서부터 성교육의 필요성이 사회 전체에서 절실히 된다는 것인데,⁶⁹ 여기서 성문제는 특정 지역이나 사회에 한정되지 않으며 인종이나 이념, 사회적 지위나 학식, 나이나 시대를 불문한 인간 본래의 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른다.

65 그럼에도 폐창의 근거로서의 일부일처제 확립 요청이 문자 그대로의 혼인 법제에 대한 요청이라기보다 성도덕에 대한 사회적 요청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66 「가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성욕본능의 변화상태」, 『동아일보』, 1931.10.9.

67 徵文高普 李一; “2. 性教育은 不必要하고 性에 대한 危險을 警告할 必要가 잇습니다.”; 培花女高 金允經: “2. 그러한 고로 부모나 교육자만이 감추어 둔다고 영영 그 본능의 발현을 잠자게 할 수는 없는 일이외다. 그같이 남에게 단편적으로 얻어 들은 불완전한 지식으로는 성욕을 그릇 쓰게 하기 쉽겠은 즉 부모와 교육자는 정당하게 똑똑하게 알리어 주고 위험한 점을 알리어 주어 주의하게 함이 좋겠습니다.”; 小說家 尹白南: “2. 以上の 경험으로 보아 이러한 經驗의 影響은 靑少年에게 끝이 없는 惡影響을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性에 대한 教育은 어느 程度까지 露骨하게 그러나 嚴肅한 態度로 이것을 미리 알리어 주어서 좋지 못한 性交의 무서운 結果로서 그들 스스로가 自己의 몸을 구해내도록 다시 말하면 自制를 연도록 함이 可할까 합니다.” 「性에 관한 問題의 討論(其一) 性知識·性教育·男女交際」, 『동광』 제28호, 1931.12, 34-36쪽.

68 이 저술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는 서신혜, 「1920~30년대 성교육에 대한 연구—기독교교육자 김필레의 『성교육』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제38호,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7, 207-238쪽 참조.

69 김필레, 『성교육』, 조선야소교서회, 1935, 2-3쪽.

1910년대 조선에서는 독일 의학 영향인 학교의(學校醫)를 중심으로 한 일본 제국의 학교 보건 체제가 전격적으로 도입되었고, 재조 일본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정책에서 조선인 전체에 대한 의료보건정책의 실시로 나아간다. 총독부는 학교보건 관련 법령 제정을 통해 학교 중심의 ‘근대적’ 학교 보건의 기본 체계를 갖추게 했다. 하지만 학교를 핵심으로 한 보건정책은 국공립의 소수 학교에만 국한되어 조선인 아동과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전해지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1921년 법령에 의거해 실시되기 시작하여 1930년대 초까지 이어졌던 학교신체검사는 신체의 의학적 판정과 그에 따른 발육의 등급화로 이어졌다.⁷⁰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성욕의 위험성과 성욕이 발동하는 시기에 대한 우려 속에서 강조되었지만, 성교육의 주체로 학교만 거론된 것은 아니었다. 자위의 악습을 우려하면서 독일 교육자에 의해 이루어진 성교육 강연의 요지를 옮긴 의학 박사 이갑수가 강조한 것은 성교육 주체로서의 부모 우선성과 부모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 성교육의 필요성이었다.⁷¹ 교육 주체와 함께 대상에 대해서도 의외의 면모가 거론되었는데, 학생[아동과 청년]과 함께 여성 특히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여성이 성교육 대상으로 주목되었다는 점은 관심을 끈다.⁷² 앞서 언급했던 바, 고백 형식에 이어 성교육 담론을 통해 역설적으로 여성의 성적 욕망이 발견되어 있었다고 말해도 좋은 것이다.⁷³

70 이희재, 「일제하 학교신체검사 제도의 시행과 특징」,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13-25쪽.

71 공적 교육 기관에서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근거로서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나, 그것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교사나 의사 등 부모의 역할을 대리하는 이들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性教育에對하여 (三)」, 『조선일보』, 1929.4.19.; 「醫學上結婚觀 (一三) 子女의性教育이必要」, 『조선일보』, 1930.12.9.

72 엄미옥, 『여학생, 근대를 만나다』, 역락, 2011, 309쪽.

73 자발적, 비자발적 금욕에 의한 성적 욕구불만이 생식기를 중심으로 한 여성 질병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다거나 성욕의 미발달에 의한 질병(‘부인냉감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성욕과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질병의 관계를 긴밀하게 연관시키는 관점이(의학박사 朴昌薰, 「특히 주의할 여성과 금욕생활」, 『별건곤』 제19호, 1929.2, 73쪽.) 수음의 남녀 차이나 수음의 폐해에 대한 통념을 바로잡거나 성적 욕망이 곧 신경쇠약과 같은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식의 지식 소개와 공존하여 이루어졌다.(「호춘으로 만히 생기는 생식기 성신경 쇠약증 (2)」, 『동아일보』, 1932.2.28.)

여성의 욕망에 관한 탐방기인 『별건곤』의 「에로 섹션」은 주로 여성의 과도한 욕망의 기괴함을 보고하고 고발하였다. 섹과 욕에 눈이 어두운 “궤녀”를 골탕 먹인 남자 이야기(〈배 주고 뱃속 빌어먹기〉)⁷⁴, 음란한 여성을 어진 여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남자 이야기⁷⁵, 아내와 친구의 불륜을 알고 복수하는 남자 이야기(〈통쾌한 복수〉)⁷⁶나 여자를 희롱했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그 자신이 여자에게 속아 물건과 옷을 모두 빼앗긴 이야기(〈벌거벗은 오입쟁이〉)⁷⁷ 등, 남성을 화자로 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들 속에서, ‘남편’이 아닌 ‘남자’와 만나는 그 여성들은 성욕이 강하여 ‘음란한’ 존재로 그려졌다. 여성의 성적 욕망은 ‘남성’이 아니라 ‘남편’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성애에 입각한 결혼과 부부관계에 정상성이 부여되고 있었던 것이다.⁷⁸

성적 욕망을 가진 여성들에 대한 비판이 서술의 기본적 관점이었고, 따지자면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비판이 1930년대 대중잡지의 일관된 기조이기는 했다. 하지만 적어도 「에로 섹션」을 두고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자면, 흥미롭게도, 윤리적 위반의 면모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음란함 자체에 대한 윤리적 비판도 노골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이 다른 지면을 통해서도 폭넓게 지속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에로 섹션」에서 이야기의 초점은 여성들의 욕망 자체였다. 여성의 성적 욕망은 발견됨과 동시에 정상성의 범주 경계에 놓이고 있었음을 말해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에로 섹션」에서 욕망을 가진 여성들의 이야기는 때로 유머로서 때로 기괴한 것으로 다루어졌는데,⁷⁹ 앞서 언급한 바 있듯,

74 「에로 섹션」, 『별건곤』 제60호, 1933.2, 32쪽.

75 위의 글, 33쪽.

76 「에로 섹션」, 『별건곤』 제61호, 1933.3.

77 「에로 섹션」, 『별건곤』 제63호, 1933.5.

78 전미경, 앞의 글, 417쪽.

79 우연히 청진동 뒷골목을 걷다 발견한 중상층 여성들의 뒤를 쫓다가, 그녀들이 재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미망인임을, 그러한 선언과는 달리 모임은 젊은 남성을 통한 성의 만족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밝히는 『삼천리』에 실린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비판은 당대 세태 비평의 대표적 주제였다. 八蓮花記, 「四十五名으로 組織된 靑孀寡婦俱樂部」, 서울 한복판에 나타난 이 기괴한 「에로」 단체, 『삼천리』 제4권 1호, 1932.1, 108-109쪽.

기괴미를 가리키는 영어 ‘grotesque’의 약어로 활용되었던 ‘그로’에는 정상을 초과한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에로’한 것이 ‘그로’한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 ‘에로그로’하다는 것은, 말하자면 성적인 의미가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정상성의 범주를 넘어설 때의 비정상성을 지시했던 것이다.⁸⁰

이 비정상성은 여성의 욕망을 병리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방식과 연관되어 있었다. 여성이 성욕을 가진 존재라는 인식에서 나아가, 여성의 육체적·정신적 질병의 원인을 성욕에서 찾는 논의가 활발했는데, 이러한 논의는 성욕이 남성에게는 생활의 일부이지만 여성에게는 거의 전부라는 인식과 병존했다.⁸¹ 부인병에 대한 논의의 확장이 말해주듯, 여성의 신체와 생리적 현상들이 병리적 현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여성의 성욕에 대한 관심이 여성 신체의 의학화된 이해와 그에 기반한 성욕의 병리화로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여성의 활동력이 약하며 그로 인해 남성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식의 논의가 보여주는 것처럼⁸², 젠더적 위계는 과학적 지식을 통해 확정적인 것이 되고 있었다. 부부간, 자녀를 지도할 때, 성욕의 생리학적 변화에 대한 지식이 유용하게 활용되기 시작하는⁸³ 동시에 생리학적 지식을 근거로 남녀의 젠더화된 차이가 생물학적 차이로 위계화 되고 교체되고 있었다.

이러한 전환적 국면을 고려하자면,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서에 대해서는 좀더 주목해봐도 좋을 것이다. 젊은 여성을 위한 성교육 저술이 흔치 않았던 당대를 배경으로 하자면, 1932년 발간된 김필례의 『성교육』의 존재 자체가 유의미하다고 해야 할 것이지만,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당시 흔치 않았던 성교

80 채석진, 앞의 글, 72-74쪽.; 김지영, 「“기괴”에서 “괴기”로, 식민지 대중문화와 환멸의 모더니티」, 『개념과소통』 제5호, 한림과학원, 2010, 39-78쪽.; 이주라 「식민지시기 괴담의 출현과 쾌락으로서의 공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1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293-321쪽.

81 鄭錫泰, 「性慾의 生理와 心理 - 男女兩性の 性慾苦」, 『별건곤』 제19호, 1929.2, 66쪽.

82 김태훈, 「생리강좌: 女女性徵의 決定 - 第二次性」, 『별건곤』 1930. 3.

83 「가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성욕본능의 변화상태」, 『동아일보』, 1931.10.29. 남녀간 13-4세 ~17-8세인 사춘기를 두고 남녀의 생식기가 완성되며 내분비가 풍성해지고 분비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대뇌 즉 성욕 중추를 자극하는 시기로 강조하는 한편, 신체, 연령, 적기, 질병, 영양 등 다층적인 차원에서 성욕의 변화를 설명한다.

육에 관한 저술을 우회하여, 성교육을 통해 가닿고자 한 여성형에 대한 것이다.⁸⁴ 『성교육』에서는 여성을 성적 욕망을 가진 존재로서 다루는 한편 성적 욕망에 대한 규율을 성교육론으로 기술함으로써, 성적 존재로서의 여성의 규범형을 상정하고 담론적으로 확정하기 시작하였다. ‘Sex education for girls’를 영문 제목으로 하여, ‘1장 성교육의 필요 2장 사춘기란 무엇인가 3장 정당한 교제와 단정한 행동 4장 약혼과 결혼의 정로(正路) 5장 불행한 결혼 생활 6장 산아제한(産兒制限) 7장 독신생활(獨身生活) 8장 정당치 못한 성적 생활 9장 성과 사회(性과 社會) 10장 성에 대한 건전한 정신적 태도’로 구성된 목차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은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제공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차원의 성생활을 결혼으로 이어지는 ‘정당한 교제’와 구분하여 난잡하고 문란한 행동으로 명명함으로써, 오히려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을 전제로 한 결혼 즉 법 제도 차원에서 허용되는 이성애적 부부생활의 원만한 유지와 관리를 본격적인 목표로 삼고 있음을 말해준다.

1930년대 조선사회에서 자신의 결혼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여성은 많지 않았다. 김필례의 『성교육』에서 상정하는 성교육의 대상이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거나 일정한 교육 수준을 획득한 여성들이었을 것임을 유추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실질적인 독자층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생아를 불합리한 사회 제도의 문제일 뿐 아니라 결혼 제도 이전에 이루어지는 성적 활동이 낳을 수 있는 심각한 폐해로 본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 저술의 강조점은 젊은 여성의 성교육론을 통해 법 제도가 허용하는 부부생활 즉 부부 중심의 가족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적 욕망이 인간의 본성임을 인정하면서도, 여성의 성적 욕망을 부부관계 내부로 귀속시키려는 이러한 입장은⁸⁵ 성행위의 생산성을 육체적/정신적 차원으로

84 낸시 암스트롱이 특징하게 배치된 성적 특성을 담지하고 있는 여성용 품행지침서의 성격을 통해 지적한 바 있듯, 교육 내용 속에는 모든 남성들이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단 한 명의 적합한 여성이 지녀야 할 특성이 재현되어 있었다. 여성용 품행지침서와 교본집들의 사회적, 문화적 역할과 거기에 특징하게 배치된 성적 특성에 대해서는 낸시 암스트롱, 오봉희·이명호 역, 『소설의 정치사: 섹슈얼리티, 젠더, 소설』, 그린비, 2020, 121쪽을 참조할 수 있다.

85 이러한 입장을 담론적으로 안정화하는 것이 식민지기 성과학의 역할이기도 했다. 남성과 여성이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성욕을 가지며, 생물학적 성차가 남녀의 성역할

로 분할하여 다루게 한다. 여기에는 사회적 기여로 이어지지 않는 성행위에 대한 비난이 담기게 되는 것이다.

성행위의 생산성이 육체적인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은 정상적인 성적 욕망의 충족을 통한 사회적 기여 혹은 성적 욕망을 사회활동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사회적 기여가 아닌 여성의 성적 욕망(성적 활동)의 비정상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으로 이어진다. 공창 제도를 타파하기 위한 대책으로 “철저하고 완비한 성교육뿐”(『성교육』, 102쪽)이라는 식의 주장이, 그 반대편에서 성적 욕망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을 때 (남성/남편의) 부부생활 바깥에서의 성적 활동을 불러오게 된다는 우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부부생활을 경계로 여성의 성적 욕망의 정당성이 확정되고 있음을 재확인하게 한다. 이는 여성의 섹슈얼리티 즉 여성의 성적 욕망과 성적 활동을 포함한 성적인 것 전부를 가정을 경계로 배척함으로써 섹슈얼리티의 남녀 차별의 논리를 만들어내는 한편, 여성에 대한 새로운 분류 즉 가정의 내부(주부)와 외부(장부)를 엄격하게 경계 짓는 차별의 논리를 만들어낸다. 남자들에게는 ‘에로, 그로, 년센스’로 상징되는 향락적 성문화가 번창했던 시대이지만, 여성에게는 성경험이 없는 처녀에서 정숙한 아내로 이어지는 생애 과정 안에 갇히거나 보호받을 수 없는 여성으로 가정 바깥에 내쳐지는 선택이 이데올로기로서 강요되기 시작한 시대인 것이다.⁸⁶

5 결론을 대신하여: 고백 형식과 성교육 프로젝트

erotic에서 유래한 ‘에로’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성적인 자극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유래하여 선정적인 내용을 다룬 문학을 에로문학(erotic文學)으로, 선정적인 내용을 다룬 소설을 에로 소설(erotic小說)로, 주로 문학이나 미술 따위의 예술에서 성적(性的) 요소나 분위기를 강조하는 경향을 에로티시즘(eroticism)으로 지칭하며, 성적인 욕망이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을 만든다는 성과학의 대표적인 세 논의는 결국 연애를 통한 결혼으로 부부가 되는 과정에 대한 강조로 이어진다. 전미경, 앞의 글, 415쪽.

86 가토 슈이치, 앞의 책, 137-139쪽.

경우에 에로틱-하다(erotic하다)고 표현한다.⁸⁷ 1930년대 이후로 ‘에로’는 점차 “육감적, 도발적 기타 남녀 양성 간의 성적 행위에 관계있는 모든 것” 즉 성을 둘러싼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1930년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분히 성적인 뉘앙스와 함께 외래적인 것이라는 감각이 새겨져 있는 ‘에로’에는 얼핏 보기와 달리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성행위에서 성에 관한 담론까지를 폭넓게 포괄하는 함의가 담겨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개조 시대의 근대적 개인은 1920년대 중반 이후로 부상한 계급적 인간관에 의해 이념적 재배치의 재편을 겪는다. 1920년대 중후반 이후로 근대적 개인에 대한 논의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위계 구도를 통과하게 된다.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걸쳐 개인과 사회를 둘러싼 또다른 재편이 젠더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근대적 개인의 젠더적 분할은 여성과 남성의 역할 분할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으로, 개인을 가정에 배치하는 동시에 가정을 통한 부부관계를 규율하는 방식으로 노동의 재배치와 통제의 핵심 전략으로 작동했다. 계급적이고 젠더적인 위계 체제에 의한 근대적 개인의 복합적 분할과 재구축은 순차적인 것이라기보다 문화적 풍경 변화와 함께 이루어지는 상호적인 과정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한 관계적 특성으로서 가시화되었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1930년대 전후로, 성문제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자 사회제도의 근본적 해결 없이는 해법을 얻을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된다. 조선에서 1930년대 전후로 이루어진 성교육에 대한 논의는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 즉 신체에 대한 생리적 설명과 성적 욕망의 육체적, 정신적 특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한 축으로, 그러한 지식을 알지 못하는 무지 상태가 야기하는 재난적 상황들을 환기하는 것을 다른 한 축으로 구성된다. 성교육이 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차원에서 한정된 기획이 아니라 현실 사회에서 특정한 성을 보호하고 금지하거나 규율하는 현실 개입적 기획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과학적’ 지식에서 나오는 성에 대한 가르침은 근본에서 개인과 사회 차원의 질병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으로, 결국 자위나 매매춘과 같은 수상쩍은 성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율하는 한편 그것이 예기

8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하는 신경쇠약이나 성병 혹은 원치 않는 임신과 같은 결과들을 예방하려는 기획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⁸⁸

성교육의 형식에 주목하자면, 앞서 고백 형식을 두고 언급한 바 있듯, 성교육은 대표적인 교육 주체인 부모와 교육자 그리고 의사로 대표되는 전문가와 교육의 대상인 아동과 청년 그리고 젊은 여성 사이의 위계 구도 속에서 제도화된다. 지식을 가진 쪽이 무지한 쪽으로 성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성교육의 형식이 ‘가르치는-배우는’ 구도로만 단순화되지는 않는다. 성교육은 성지식의 전달을 통해 이루어지는 한편, 성적 신체에 대한 자기 각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성적 욕망을 인간 본래의 것으로 인정한 채로 성적 욕망에 대한 금지나 규율을 말하기 위해서는 성교육에 도덕적 요청을 끌어들이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성교육은 또한 도덕교육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덕교육을 통해 사회와 국가 차원의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구별을 지향하게 된다는 점에서 성교육에는 신체의 근대적 국가화 기획이 내장되어 있다고 해야 한다. 고백의 형식을 통해 성적 욕망이 구체화되고 ‘음란한 것’을 구성하는 한편 신체에 대한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이해를 통해 위협한 것으로서의 성문제가 가족과 사회 그리고 나아가 민족(국가) 구성의 최소 단위인 개인의 삶을 작동하게 하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원리가 되는 과정들, 이 과정들이 엮히는 방식으로 아동과 청년, 부모, 교육자, 전문가(의사) 즉 개인과 가정-학교-사회가 신체에 대한 통제와 관리 그리고 감시의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형성하면서 섹슈얼리티에 기반한 사회의 전면적 재구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⁸⁹

88 Sabine Frühstück, *op. cit.*, pp.55-71. 덧붙이자면, 일본에서 1900년대 후반 폭넓게 이루어졌던 성문제를 둘러싼 논의들은 공중 보건과 위생을 수립하고 개선시키려는 목표 아래 국가적 차원의 신체를 성적 신체로 구성했다. 성적 신체를 기반으로 한 가족, 사회, 국가가 공중 보건과 위생의 논의 속에서 재편되었다. 제국의 ‘지역’의 차원에서 조선사회의 성애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할 때, 그것을 제국/식민의 차이 없는 재편으로만 볼 수는 없다.

89 페르낭 브로델은 물질문명과 자본주의를 추상화하지 않으면서 그 복잡성을 복합함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확정적인 사건과 그에 대한 명징한 해석이 아니라 흐름과 경향성 무엇보다 과정에 주목하고자 했다. 그는 일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의 (재)형성 장면들을 포착하기 위해 영국의 역사가인 프레드릭 메이틀랜드(1887)가 한 말을 그 자신의 작업을 두고 반복했다. 여기에 그가 한 말을 옮겨둔다. “단순성은 출발점이 아니라 목표이다.” 혹시

참고문헌

기본자료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신동아』 『신여성』 『별견곤』 『동광』 『삼천리』

김필레, 『성교육』, 조선야소교서회, 1935.

염상섭, 『두 파산』, 문학과지성사, 2006.

단행본

검열연구회, 『식민지 검열, 제도·텍스트·실천』, 소명출판, 2011, 18쪽.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9, 266-276쪽.

박차민정, 『조선의 퀴어』, 현실문화, 2018, 34쪽.

서지영, 『경성의 모던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3, 1-327쪽.

소래섭, 『에로 그로 년센스: 근대적 자극의 탄생』, 살림, 2005, 1-95쪽.

소현숙, 『이혼 법정에 선 식민지 조선 여성들』, 역사비평사, 2017, 382-389쪽.

엄미옥, 『여학생, 근대를 만나다』, 역락, 2011, 309쪽.

가와무라 구니미쓰(川村邦光), 손지연 역, 『섹슈얼리티의 근대』, 논형, 2013, 85-112쪽.

가토 슈이치(加藤秀一), 서호철 역, 『‘연애결혼’은 무엇을 가져왔는가—성도덕과 우생결혼의 100년간』, 소화, 2013, 41-45쪽, 137-139쪽.

게일 루빈(Gayle Rubin), 신해수·임옥희·조혜영·허윤 역, 『일탈』, 현실문화, 2015, 282쪽, 296-297쪽.

낸시 암스트롱(Nancy Armstrong), 오봉희·이명호 역, 『소설의 정치사: 섹슈얼리티, 젠더, 소설』, 그린비, 2020, 121쪽.

도나 헤러웨이(Donna J. Haraway), 황희선 역, 『해러웨이 선언문』, 책세상,

운이 좋으면 우리의 도착점에서 그것을 얻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페르낭 브로델, 주경철 역,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I-1』, 까치, 1996, 15쪽.

2019, 39-41쪽.

미리엄 실버버그(Miriam Silverberg), 강진석·강현정·서미석 역, 『에로틱 그로
테스크 년센스: 근대 일본의 대중문화』, 현실문화, 2014, 1-606쪽.

미셸 푸코(Michael Foucault), 이규현 역, 『성의 역사』 1, 나남, 2019 (3판), 75-
81쪽, 122-123쪽.

요시미 순야(吉見俊哉), 연구공간 수유+너머 ‘일본근대와젠더세미나팀’ 역, 『확
장하는 모더니티』, 소명출판, 2007, 30-32쪽.

제프리 위크스(Jeffrey Weeks), 서동진·채규형 역,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 현실
문화연구, 1997, 31쪽.

캐슬린 배리(Kathleen Barry), 정금나·김은정 역,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삼인,
2002, 77쪽.

Sabine Frühstück, *Colonizing Sex*,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pp.55-
71.

논문

김수진, 「신여성 현상의 세계적 차원과 사회적 차이」, 『한국여성학』 제22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06, 185-230쪽.

김양선, 「발견되는 성, 전시되는 성—식민지 근대와 섹슈얼리티의 접속」, 『시학
과언어학』 제21권, 시학과언어학회, 2011, 49-72쪽.

김지연·김균, 「식민지 근대 신여성의 담론 연구: 1920~1930년대 한국의 신여
성 광고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제17권 4호, 한국광고홍보학회,
2015, 194-226쪽.

김지영, 「“괴기”에서 “괴기”로, 식민지 대중문화와 환멸의 모더니티」, 『개념과소
통』 제5호, 한림과학원, 2010, 39-78쪽.

류수연, 「조선의 ‘이트(It)’가 된 ‘모던 걸」, 『민족문화사연구』 제52호, 민족문학
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13, 205-230쪽.

박숙자, 「괴기에서 년센스까지: 1920년대 취미독물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재현
양상 『별건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175-195쪽.

- 박현숙, 「미국 신여성과 조선 신여성 비교 연구: 복식과 머리 모양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제28호, 한국미국사학회, 2008, 1-50쪽.
- 서신혜, 「1920~30년대 성교육에 대한 연구—기독교교육자 김필례의 『성교육』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제38호,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7, 207-238쪽.
- 서지영, 「식민지 근대 유흥 풍속과 여성 섹슈얼리티」, 『여성과역사』 제65호, 한국사회사학회, 2004, 132-168쪽.
- 소영현, 「여학교와 기숙사—식민지기 여학생과 일상 감각의 젠더적 재편」, 『국제어문』 제38호, 국제어문학회, 2019, 77-100쪽.
- 신순철,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유행가 노랫말로 본 ‘에로-그로-넌센스’의 사회상」, 『현상과인식』 제39권 4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5, 123-152쪽.
- 이명선, 「식민지 근대의 ‘성과학’ 담론과 여성의 성(sexuality)」, 『여성건강』 제2권 2호, 대한여성건강학회, 2001, 97-124쪽.
- , 「근대의 ‘신여성’ 담론과 신여성의 성애화」, 『한국여성학』 제19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03, 5-37쪽.
- 이주라 「식민지시기 괴담의 출현과 쾌락으로서의 공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1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293-321쪽.
- 이희재, 「일제하 학교신체검사 제도의 시행과 특징」,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전미경, 「1920~1930년대 ‘남편’을 통해 본 가족의 변화—『신여성』과 『별건곤』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29호, 한민족문화학회, 2009, 405-438쪽.
- 정지영, 「근대 일부일처제의 법제화와 ‘첩’의 문제: 1920-1930년대 『동아일보』 사건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제9권, 한국여성사학회, 2008, 79-119쪽.
- 차민정, 「1920~30년대 ‘성과학’ 담론과 ‘이성애 규범성’의 탄생」, 『역사와문화』 제22호, 문화사학회, 2011, 29-52쪽.
- 채석진, 「제국의 감각: ‘에로 그로 넌센스」, 『페미니즘연구』 제5호, 한국여성연구소, 2005, 43-87쪽.

홍양희, 「‘법(法)’과 ‘혈(血)’의 모순적 이중주—식민지시기 ‘사생아’ 제도의 실천, 그리고 균열들」, 『역사문제연구』 제31권, 역사문제연구소, 2014, 345-375쪽.

황혜성, 「“위험한 여성” 플래퍼: 1920년대 미국 문화 단면 읽기」, 『미국사연구』 제22호, 한국미국사학회, 2005, 89-118쪽.

Abstract

The Invention of the “Erotic” in Early Modern Korea

– With a Focus on the Confessing Sexuality and Sex Education Projects in the 1920s and 1930s

So Younghyun

Around the 1930s, a class and gender shift in society took place. Rather than a sequential process, the complex division and reconstruction of modern individuals by class and gender hierarchies was a simultaneous and reciprocal process that occurred alongside changes in the cultural landscape, and it became visible in society as a relational characteristic around sexuality. Since the 1920s, when romantic love became a trend, intellectuals who were concerned about sexual disorders vocalized the need for “scientific knowledge” about sex and sex education. Accepted as new knowledge and a modern knowledge system, sexology, the science of desire, naturalized gender differences by describing changes in modern relationships between men and women as biological sex differences. Once the 1930s began, there was widespread recognition that the social system was in a transitional period; that is, there was an awareness that families were in a state of bankruptcy and that sexual chaos had reached its peak. What happened to the formation of discourses and social systems surrounding sexuality in the 1920s and 1930s? This paper analyses narratives, print media, and other publications to identify changes in the recognition of sexuality and the social system surrounding in the 1920s and 1930s. The paper simultaneously identifies the existence of sexual desire through forms of confession, and reveals the process whereby “the obscene” was constructed and made into the target of sexual education. By analyzing scenes where sexuality as a threatening force is constructed as the basic principle of an individual’s life, this paper confirms that sexuality was employed to construct an epistemic base for the individual, society, and the nation(/state) alongside a reorganization of society centered on sexuality.

Key words: erotic, the obscene, sexuality, confession, Yeom Sang-seop, New Year's Eve, sexual desire, sexualization, sexual disorder, sexology, sexual problems, sex education, Kim Pil-rye, *Sex Education For Girls*

본 논문은 2021년 7월 16일에 접수되어 2021년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1년 8월 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